

### 이낙연 전 총리, 미국 유학 마치고 귀국

# “나라 무너지고 있어... 제 못다한 책임 다할 것”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며 ‘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입국장 앞에서 언론과 지지자들을 향해 1년 동안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소회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금이 갔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았던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길 바란다. 대외 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선 “원전 오염수 해의 방류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미국과 중국에는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옳다”고 러시아에는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지난 1년 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민이 나라 걱정... 국민이 바로세울 것”  
尹 정부에 “국정 재정립·대외관계 바로 잡아”  
지지자들에 “여러분 도움 잊지 않을 것  
차분하게 씌고 말씀 나눌 기회 만들겠다  
애국심·절제력 가진 국민들이 힘 합쳐야”

이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그러나 저는 믿는다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다시 바로 설 것이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거 잘 안다. 저의 무리한 책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기 저기가 무너지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친다. 대외 관계에

지난 1년 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 여러분 보고 싶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저의 고민거리였다. 그 공부를 했다. 공부한 것으로 책을 썼고, 미국, 독일, 체코에서 21번 강연을 했다. 강연으로 저의 공부부는 더 충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지지자들을 향해선 “여러분의 도움 잊지 않겠다”며 “계게 듣고 싶은

말씀도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는다. 차분하게 씌고 말씀 나눌 기회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을 떠나기 전에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분 같이 애국심과 절제력을 가진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저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국민 속에서 길을 찾아야겠다. 거듭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못다한 책임 다 하겠다”는 어떤 의미인가, “내년 총선 전

에 어떤 역할 할 것인가, ‘혁신위 출범한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는가, ‘주박끼기 등 강성 지지층 행동 어떻게 보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지극히 말을 아꼈다. 이날 공항 입국장 앞에는 지지자와 약 1000명이 모여 그의 귀국을 환영했다. 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전세버스를 타고 이 전 대표 마중을 나오기도 했다. 공간 대비 넘치는 인파에 공항 경비대 인력에 경찰 기동대 경력까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자들은 벌써 일년 건강한 모

습으로 돌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대를 바로 잡을 진정한 리더 이낙연 총리님 환영합니다. 이낙연 당선과 함께 흔들림없이 강물처럼 바다로 가겠습니다’ 등의 손팻말을 펼쳐들고 “이낙연”을 연호했다. 현역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 중에는 김철민·박영순·실훈·이계호·이병훈·윤영찬 의원을 비롯해 최은열(연대와공생 상임이사) 전 의원, 신경민(연대와공생 부이사장) 전 의원 등이 입국장에 마중 나왔다. /뉴시스

### “전북의병사 선양 교육사업 추진을”

이병철 도의원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전주 7)은 지난 22일 제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조선의병사를 재조명하고 추진력 있는 선양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명목상의 충절고장이 아닌 살아있는 의병정신의 고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선시대 의병들은 등한시하면서 근현대사 독립투사들과 국가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논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반쪽짜리 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병사가 발견되고 명단까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북도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마다 총의의 고장이라 말하지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지역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은 현재 거의 방치돼 있거나 잊혀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철 의원은 “하루속히 전라북도 조선의병들의 유적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개 시군별 기념비 등을 설치해 지역 출신의 의병들을 정려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준비 철저히”

윤정훈 도의원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은(무주)은 지난 22일 제40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달 개소 예정인 전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모든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긴급돌봄 이용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며, 활동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돌봄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당초에는 사업 대상지역이 전주, 군산, 남원이었지만, 복지부의 산업 변경으로 인해 전국 17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긴급돌봄 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며 센터가 설치되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등주권 등의 발달장애인 역시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전북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 특자도 개정법안 이해·수용 방안 논의

도, 국회의원 등과 소통 강화  
김수흥 의원 주최 세미나 가져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주최,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전북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 국토교통분야의 제도개선 사례 개정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국회의원-중앙부처-전북도가 한 자리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개정법안을 이해하고 수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앞서 도-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하면서 국회의원별로 전담과제를 지정해 해당부처와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실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첫 번째 세미나로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주최,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전북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국토교통분야의 제도개선 사례 개정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도는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법 국외 통과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전반기 개정안 입법과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여·야 협치의 모델을 완성해나가는 복안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김수흥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을 논의

중적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북형 특례의 부처 수용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부처에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법 국외 통과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전반기 개정안 입법과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여·야 협치의 모델을 완성해나가는 복안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김수흥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을 논의

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반기 개정안의 중앙부처 실행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우리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각 중앙부처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배경을 적극 설명하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개정안의 부처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3일 전북도 국제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멘토-멘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여 신규공무원의 멘토가 되어 진로고민과 공직생활 궁금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는 ‘생생토크’ 시간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멘토-멘티 역량 강화 워크숍

도 인재개발원, 김관영지사 초청 ‘생생토크’ 진행 큰 호응

전북도 인재개발원은 지난 23일 전북도 국제컨벤션에서 전북도 멘토-멘티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청 신규공무원의 적응을 돕고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대 간 멘토-멘티가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관영 도지사가 신규공무원의 멘토가 돼 진로고민과 공직생활 궁금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는 ‘생생토크’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신규공무원들은 김 지사에게 상사와의 의견 충돌 시 대처방법, 연설이나 발표를 잘하는 방법 등을 질문했다. 김 지사는 진솔하게 답변하고 도정발전 비전도 공유하며 신규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는 특강 및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서로 소통했다. 한 참석자(멘티)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조인자가 생겨 조직생활의 안정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참석자(멘티)는 “빨리 성장해 새롭게 들어오는 후배들의 멘토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말하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멘토링은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를 키우는 과정이다”며, “선배의 경험은 뒤이은 세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산이고, 후배의 참신한 생각과 소통 방식은 앞선 세대에겐 자극과 도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같이 성장하는 전라북도만의 이름다운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9팀의 멘토-멘티는 지난 3월 결연식을 갖고 월2회 멘토링 데이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연구원, ‘특자도 성공’ 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북도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전북연구원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도민들의 지혜를 모은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 방안’으로 전문가 부문과 일반부문을 나뉘어 진행된다. 전문가 부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에 대한 아이디어, 일반 부문에서는 거버넌스와 홍보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전북도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도민공모 게시판의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이메일(ida@jthink.kr)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부안군의회 정례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지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11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부안군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함께 2023년 제2회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결하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